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술 2023-196

2023.12.07.

이 보고서는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운송장비·부품

# 대원산업(005710)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최윤희 전문위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 대원산업(005710)

미래차에도 대응 가능한 시트 설계 기술 보유 기업

## 기업정보(2023/11/30 기준)

대표자	허재건, 허재명, 김재덕
설립일자	1968년 09월 10일
상장일자	1993년 06월 21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주요제품	자동차 시트

## 시세정보(2023/11/30 기준)

현재가(원)	5,740원
액면가(원)	500원
시가총액(억 원)	1,144억 원
발행주식수	20,037,600주
52주 최고가(원)	7,180원
52주 최저가(원)	5,140원
외국인지분율	12.34%
주요주주	
허재건 외 특수관계인	61.96%

## ■ 55년 업력의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한 자동차 시트 전문 생산 기업

대원산업(이하 동사)은 1968년 9월에 설립되어 1993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이다. 동사는 자동차 시트 단일 사업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카니발, 니로, 스톨닉, 모닝 등의 기아(주) 자동차 시트를 제작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현지 현대 및 기아 자동차용 시트를 제조하고 있다.

## ■ 전기차, 자율주행자 전환에도 영향이 크지 않은 비즈니스모델

동사의 주요 제품인 자동차 시트는 자동차의 패러다임 및 세대 변화에도 대체되지 않는 자동차 주요 부품에 해당된다. 네비게이션, 자율주행 등의 IT 발달과 레저 활동의 증가, 전동화 기능 발전으로 운전자가 자동차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운전자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시트 성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에 시트를 납품하며,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풀 플랫(Full Plate) 시트, 릴렉스 시트, 통풍/온열 시트 등 다양한 시트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벨트 내장 시트, 방향전환 시트, 이동 가능 시트 등 다양한 형태의 시트구조를 선행 개발 중에 있으며, 일부는 완성차 업체와 함께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 카니발 차종의 판매호조에 따른 수혜 기대

동사는 완성차 업체의 실적에 매출이 연동되는 구조로, 주요 납품 차종인 카니발의 판매가 국내외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고, 내년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버전의 카니발이 사전예약에서 흥행하며 동사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니발 차종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 협회(IIHS)의 충돌 테스트 결과에서 좋지 않은 등급을 받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0	6,426.4	-2.8	280.6	4.4	180.7	2.8	5.6	3.6	53.1	902	16,584	6.1	0.3
2021	7,626.4	18.7	301.2	3.9	327.4	4.3	9.3	6.2	48.2	1,634	18,556	4.2	0.4
2022	7,370.4	-3.4	314.0	4.3	376.6	5.1	9.5	6.8	33.9	1,879	20,844	2.8	0.3

## 기업경쟁력

### 반세기 이상 완성차 업체와 협력관계 유지

- 동사는 완성차 업체인 기아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장기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매출처 견고
- 미래차에 적용될 시트 등에 대해 일부 공동으로 선행 개발

### 미래형 자동차 대응 기술력 보유

- 완성차 업체의 미래차 컨셉에 따라 이에 대응가능한 시트 구조 설계 기술 보유
- 시트 분야 선도기업들과 기술제휴와 꾸준한 기술 교류로 트렌트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핵심기술/경쟁력

- 차량별 시트의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한 표준화된 프레임 보유
  -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
- 안전성 향상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선행검증 프로세스 확립, 고품질 제품 제공을 위한 체계 확보
- 릴렉스, 방향전환, 격납고 수납이 가능한 가변형 시트 설계기술 보유

### 동사의 자동차 시트 제품



## 시장경쟁력

### 국내 자동차용 시트 의자 시장규모

년도	시장규모	연평균 성장률
2017년	5억 3,592억 원	▼ 0.97 %
2026년	4억 9,098억 원	

### 세계 자동차 시트 시장규모

년도	시장규모	연평균 성장률
2023년	537억 달러	▲ 1.20%
2030년	584억 달러	

-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수직계열 구조 형성
  - 완성차 수주물량에 의존하는 시장 형태로 완성차 시장 생산량과 밀접한 영향
- 고부가가치의 시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 안락함을 높인 쿠셔닝 시트, 통풍/열선/마사지/릴렉스 등 기능성 시트, 멀미를 최소화한 헤드레스트 등 고부가가치 시트 비중 확대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 E

(환경경영)

- 동사는 친환경 소재 시트 제조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제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동사는 ISO14001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 저감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리 후생을 제공하고 있음.
- 하도급 4대 실천사항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외 협력사 대상 실무역량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상생경영을 이행하고 있음.
- 안전보건방침 설정, 노사 안전관리 활동강화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구축하고 있음.

###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이사회와 감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통해 배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동사는 기업 윤리헌장 제정 및 공지하고 있으며, 부패신고 제도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운영과 부패 발생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한 윤리경영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반부패 경영을 수행하고 있음.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 I. 기업 현황

### 완성차 1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시트 단일 산업 영위 기업

동사는 1968년 설립되어 199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자동차 시트 전문생산업체로 오랜 기간 자동차 시트 제조 단일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로서 국내 및 중국, 러시아, 베트남 소재에 현지법인을 두고 자동차용 시트를 납품하고 있다.

### ■ 기업개요

동사는 1968년 9월 10일 설립되어 1993년 6월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자동차용 부품(자동차 시트)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179에 소재하고 있다.

분기보고서(2023.9) 기준, 동사는 DAEWON RUS LLC 등 총 4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 소재 해외 자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러시아 법인을, 2013년 중국 강소선일기차배건유한공사를 설립하였고, 베트남 법인은 2018년 6월 설립되었다.

[표 1] 동사의 종속기업 현황

회사명	업종	2022년 기준 자산 (백만 원)
염성대원기차배건유한공사(중국)	자동차부품 제조	47,056
DAEWON RUS LLC(러시아)	자동차부품 제조	71,045
강소선일기차배건유한공사(중국)	자동차부품 제조	3,640
DAEWON AUTO VINA CO., LTD(베트남)	자동차부품 제조	25,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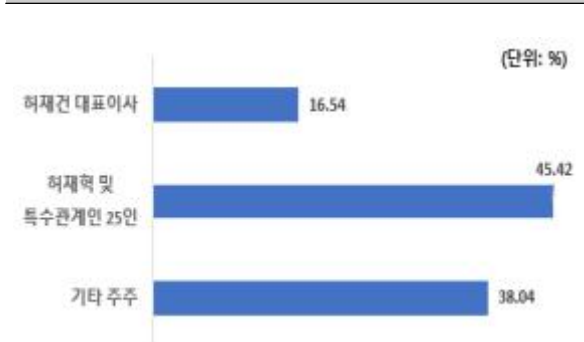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2023년 9월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허재건 대표이사(16.54%)이며, 허재혁(8.76%), 옥천산업(주)(8.22%)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총 지분의 61.96%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 38.04%는 기타 소액주주(27.9%) 등이 보유하고 있다.

[표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주주명	지분율(%)
허재건 대표이사	16.54
허재혁 및 특수관계인 25인	45.42
기타 주주	38.04
합계	100.00

[그림 1] 동사의 주주구성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 ■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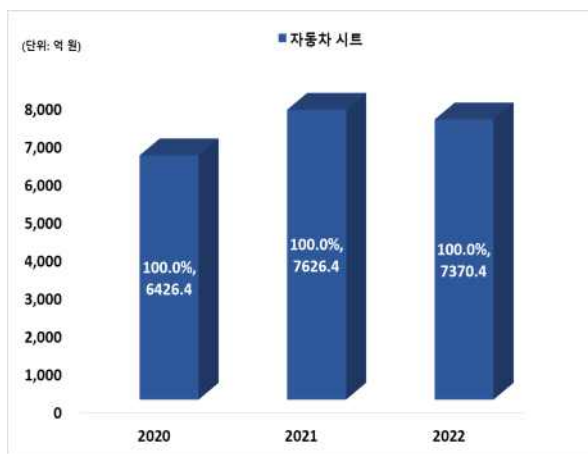
동사는 자동차 시트 전문생산업체로 1968년 설립되어 오랜 기간 자동차 시트 제조 단일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인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로서 생산부품의 대부분을 기아자동차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카니발, 니로, 스톨닉, 모닝, 레이 등의 기아자동차 시트를 제작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 소재 자회사를 설립하여 현지 현대 및 기아자동차용 시트를 제작하고 있다.

국내에 본사(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179), 안산공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74),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령길 218), 시화공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79번길77), 서산공장(충남 서산시 수석산업로79), 발안공장(경기 화성 향남 발안공단로160)을 두고 차량시트 및 스폰지를 제조하고 있으며, 중국 염성대원, 중국 강소선일, 러시아 대원루스, 베트남 대원오토비나 등 해외 자회사 4곳을 통해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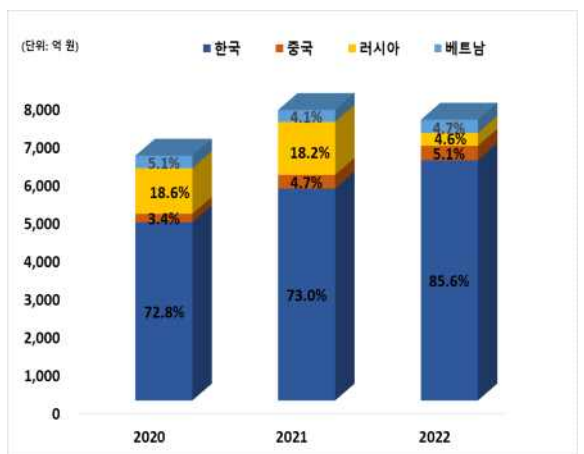
자동차 시트는 철재, 스폰지, 원단 등의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사는 국내외 부품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은 자동차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가격을 비롯한 기술, 품질, 납기 등의 생산경쟁력이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사는 인체 공학적인 측면에서 안락성과 편의성을 추구하여 오랜 시간의 운전에도 피로를 느끼지 않는 편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2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7,370.4억 원으로 전년 7,626.4억 원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 매출이 85.6%으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중국지역 매출 비중이 5.1%, 러시아 지역 매출 비중이 4.6%, 베트남 지역 매출 비중이 4.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매출 추이 및 구성



[그림 3] 지역별 매출 비중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NICE디앤비 재구성

## ■ 동사의 ESG 활동



환경(E) 부문에서, 동사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CDA (Co-polymer Dot-type-apply Adhesive) 접착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천연 가죽이 아닌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친환경(생분해성, 리사이클), 고기능성(난연성, 신축성)의 소재를 적용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버려지는 시트 커버링, 플라스틱을 이용한 업사이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등 시트 제조에서 폐기까지 자원 사용의 순환적 구조 구축을 통해 그린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사회(S) 부문에서, 동사는 임직원 본인 및 가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 건강검진, 자녀학자금, 경조사, 사내 복지기금 설치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하도급 4대 실천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그 외 협력사 임직원 대상 실무역량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상생 경영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협력사 안전관리 기술지원, 노사합동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보건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사업보고서(2022.12)에 따르면, 동사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2.3%이며 동 산업의 여성고용비율 평균은 36.1%이다. 또한, 동사의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88.0%로 동 산업 평균인 73.4%를 상회하지만,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는 64.4%로 동 산업 평균인 76.5%를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백만원)

성별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517	0	517	14.9	6.8	84.8	43.2
여	12	0	12	9.6	5.2	74.6	31.7
합계	529	0	529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2.12),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NICE디앤비 재구성



지배구조(G) 부문에서, 동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포함해서 3인의 사내이사, 1인의 사외이사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감시장치로서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통해 배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비위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 윤리헌장,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공지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 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 II. 시장 동향

### 완성차 시장에 종속적이나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은 특정 완성차 업체에 예측적인 납품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급자 교섭력이 낮고, 수익성이 높지 않으나 자동차 패러다임이 전동화, 자율주행, 친환경으로 변화하며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 및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 국내 자동차 시트 시장 특징

자동차는 내연기관 기준 3만 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차 역시 엔진 관련 부품들을 제외하면 1만 5천 개 이상으로 부품으로 구성된다. 자동차 시트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은 특정 완성차 업체에 예측적인 납품거래 구조를 가진다. 한국자동차산업 협동조합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완성차(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타타대우) 업체와 직접 거래하고 있는 1차 협력업체수는 729개 (대규모 기업집단 29개, 중견기업 272개, 중소기업 428개 업체)이며, 수출액은 17.3%로 대부분 완성차 업체에 OEM 납품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는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거래선 이탈에 따른 사업위험도 큰 구조이다. 자동차부품 산업의 사업 안정성 핵심은 완성차 업체와의 유대관계와 품질, 납기준수, 가격 등이다. 완성차 업체로부터의 실질적인 생산계약 수주를 위해서는 품질과 생산역량에 대한 까다로운 검증 등이 필요하여 다소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모기업과 계열사 간의 기술, 자금 등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계열사 여부, 수주 실적, 보유 기술력 등의 요인에 따라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폐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국내 자동차부품 연도별 매출추이

구분	매출실적(억원)					증감률(%)
	OEM	A/S	수출	기타	합계	
2021	552,215	38,655	216,557	550,000	1,357,427	6.9
2022	599,350	41,955	250,674	553,000	1,444,979	6.4

- (주) 1. OEM : 자동차 6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타타대우)의 납품실적  
 2. A/S :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실적으로 타이어, 배터리 등 별도의 유통구조를 가진 품목은 제외함  
 3. 수출 : 무역통계 MTI Code(742) 자동차부품 실적에서 완성차회사의 보수용(A/S) 수출액과 KD 수출액을 제외하고 원화로 환산  
 4. 기타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모기업에 대한 납품액과 부품업체간의 거래액 등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 시트 시장 역시 전방으로는 완성차 업체에 후방으로는 부품 및 부자재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존재하는 수직 계열화된 구조를 가진다. 부품공급 특성상 전방으로 갈수록 자본집약적이며, 후방으로 갈수록 다품종 생산,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보이며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자동차 시트 시장은 가죽, 플라스틱, 섬유, 금속 등 다양한 소재부품이 필요하며, 완성차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전자 시스템과의 연계로 인해 다양한 후방산업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대부분 업체의 수익성이 완성차 업체의 수익성에 종속되는 형태로 전방 산업인 완성차 산업의 수요 및 생산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딜로이트의 자동차 가치 사슬의 미래 보고서(2023)에 따르면, [그림 5]와 같이 자동차 시트 기업들은 내부요인(현금흐름 창출능력, 시장 적응력 및 혁신 역량, 신용도)에 의한 리스크는 높은 수준이나 외부요인(시장구조 및 압력, 규제 및 사회환경, 미래 시장 유망성)으로 인한 리스크는 낮아 다른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상태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제 불가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목표에 다른 가용 자원의 집중적 활용을 통해 시장 및 전략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범주로 확인된다.

자동차 시트는 최근 3개년 EBIT 마진율이 3.9%로 커넥티드 주행 및 자동차용 전자기기, 신규 구동계 부품에 비해 절반 이상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동차 부품 평균 마진율(5.9%)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여러 부품 및 부자재 회사들로부터 납품받아 최종 완제품을 조립하는 구조로 매출 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운전자본 비교 데이터에서는 가장 짧은 현금순환주기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부피가 큰 시트 특성상 재고가 많아질수록 이를 보관하기 위한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재고 보유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운전자본 리스크는 낮으나 재고관리가 주요 경영전략 중 하나로 꼽히는 시장이다.

[그림 5] 자동차 부품군 리스크 지도



\*출처: 딜로이트, 자동차 가치 사슬의 미래(2023)



## ■ 국내 자동차 시트 시장 규모

자동차부품 시장은 전방 산업인 완성차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2023년 자동차 산업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완성차 시장은 2017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해 2018년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후 COVID-19로 인한 공급망 문제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였다. 2020년 이후 일부 공급망 해소와 소비심리 증가에 따라 매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2023년 내수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시트 시장은 통계청 품목분류 따라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출하금액은 2017년 5조 3,592억 원에서 2018년 4조 8,988억으로 8.59% 감소하였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여 2021년 5조 1,546억 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후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전망을 참고하여, 2017년~2021년의 연평균 성장률인 -0.97%를 적용 시 국내 자동차용 신품 의자 출하금액은 2026년 4조 9,098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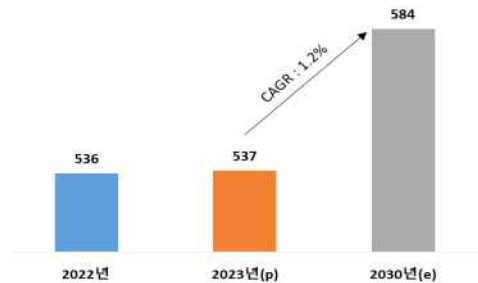
[그림 6] 국내 자동차용 신품 의자 출하금액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NICE디앤비 재구성

한편,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자율주행, 친환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자동차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해지고, 운전자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며,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의 이동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동차 시트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한 자동차 시트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안락함을 높여 줄 자동 쿠션닝 기능과 마사지 기능, 멀미를 줄이기 위한 헤드레스트 개발 등 고부가가치의 시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자동차 시트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성능 시트에 대한 높은 비용과 글로벌 부품 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입은 시장 성장의 억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림 7] 세계 자동차 시트 시장규모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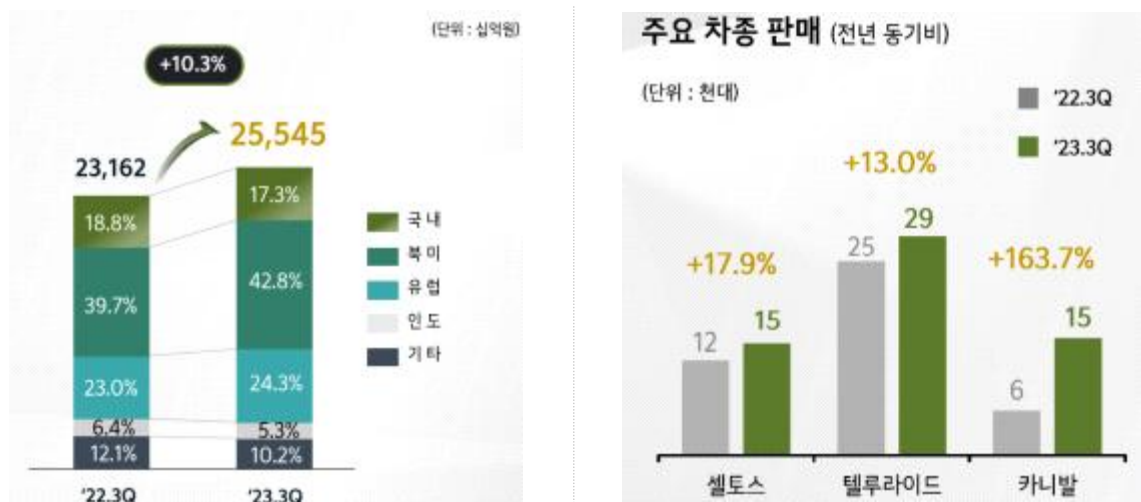


\*출처: MarketsandMarkets, Automotive seat Market (2023)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 시트 시장은 2022년 536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2023년 537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연평균 1.2% 증가하여 2030년에는 584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료에 의하면, 완성차 1차 협력업체 중 88.9%가 현대자동차, 기아에 납품하고 있으며, 동사 역시 매출 대부분이 기아에 의해 발생되고 있어 기아의 판매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아의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기아는 2023년 3분기 RV 중심의 판매 호조세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3조 1,6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카니발 매출이 1만 5,000대 판매되며 전년 대비 163.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8] 기아 매출 추이(좌) 및 미국 내 주요 차종 판매 실적(우)



\*출처: 기아 홈페이지, 기아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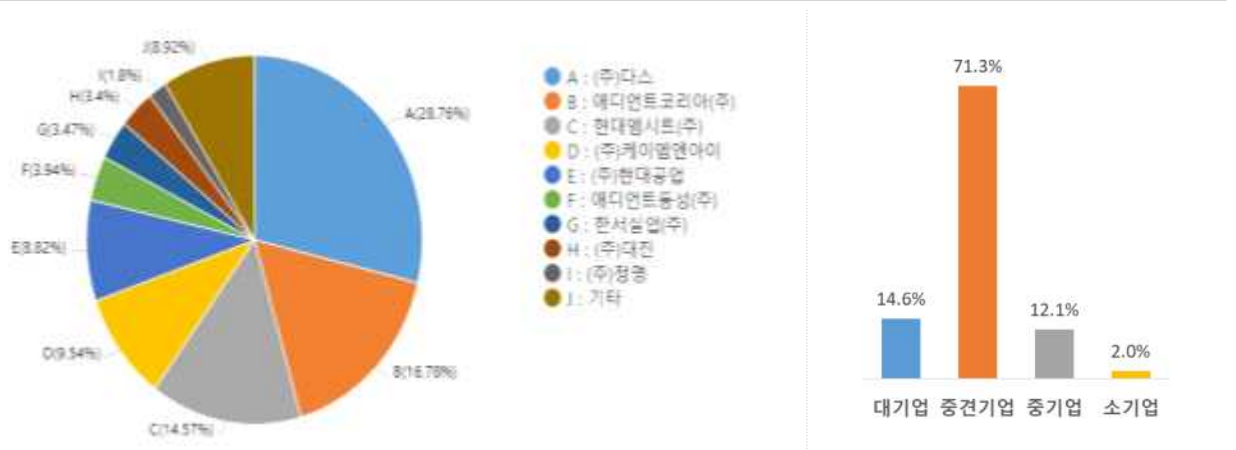
## ■ 국내 자동차용 신품 의자 부품 제조업 점유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가 제공하는 산업·시장 분석예측 시스템(KMAPS)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시장은 2021년 기준 3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매출 기준으로 (주)다스가 1조 1,905억 원(연결기준), 28.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글로벌 시트 제조 기업인 애디언트코리아(주)가 4,481억 원(별도기준), 16.78%, 현대모비스의 종속회사인 현대엠시트(주)가 3,890억 원(별도기준), 14.57%, (주)케이엠앤아이가 2,550억 원(별도기준), 9.54%, 현대엠시트(주) 및 애디언트코리아(주)에 납품하고 시트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주)현대공업이 2,493억 원(연결기준), 8.82%로 상위 5개 기업이 78.47%를 차지하며, 소수업체의 과점시장으로

보여진다. 다만, 해당 조사 데이터에는 동사(7,626억 원, 21년 연결기준), ㈜대유에이텍(1조 5,697억, 21년 연결기준) 등 다수의 기업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여지며, 매출액을 고려 시, 동사 역시 Top 안에는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규모별 시장점유율은 대기업 14.6%, 중견기업 71.3%, 중기업 12.1%, 소기업 2.0%로 해당 시장은 동사와 같은 중견기업의 매출액 점유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림 9] 국내 자동차용 신품 의자 부품 제조업 점유율(좌) 및 기업규모 비중(우)(2021년 기준)



\*출처: KISTI, KMAPS 자동차용 신품 의자 및 부품 제조업 산업·시장분석(2023), NICE디앤비 재구성

## ■ 주요 경쟁업체

상위 자동차 시트 완제품 제조 업체들은 중견기업 규모의 외감 업체로 확인되며 대부분 상장된 모기업에 종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요 경쟁업체 분석에서는 상기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시장의 상위 점유 업체를 포함한 모기업 및 상장업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사의 주요 경쟁업체로는 대유에이텍, 현대모비스, 현대공업, 케이엠앤아이 등이 있으며, 2022년 연간 매출액을 비교하면 동사가 7,370억 원(연결), 대유에이텍이 1조 4,040억 원(연결), 현대모비스가 51조 9,063억 원(연결), 현대공업이 3,192억 원(별도), 케이엠앤아이가 3,192억 원(별도)이다.

[표 4] 국내 자동차 시트 사업 경쟁사

기업	주요 제품 및 관련 기술	기본정보(2022.12 기준)
[대원산업]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스닥 중견 기업으로, 자동차 시트 단일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음.</li> <li>기아의 1차 벤더로 카니발, 스토닉, 니로, 모닝에 사용되는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연결): 7,370억 원</li> <li>영업이익: 314억 원</li> </ul>
[대유에이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스피 중견기업으로, 운전대, 자동차 시트 등 자동차 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연결): 14,040억 원</li> <li>영업이익: -320억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포트지, 쏘울, 셀토스, 봉고트럭 등 기아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시트 독점공급</li> </ul>	
[현대모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자동차 계열사로, 국내 1위 자동차 부품 업체</li> <li>자동차 시트 제조사인 '현대엠시트'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연결): 519,063억 원</li> <li>영업이익: 20,265억 원</li> </ul>
[현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스닥 중견기업으로, 시트패드 기술을 바탕으로 주력 제품인 자동차용 시트패드,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등 자동차 시트 부품을 제조사업을 영위 중임.</li> <li>GV60, 아반떼, 베뉴 등 현대차에 납품하는 현대차 1차 협력업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연결): 2,785억 원</li> <li>영업이익: 151억 원</li> </ul>
[케이엠앤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감 중견기업으로, 자동차 시트 커버를 제조하는 코스피 상장사인 SG글로벌의 계열사임. 주로 자동차 및 항공기용 시트를 제조하고 있음.</li> <li>알페온, 말리부, 크루즈, 아베오, 스파크, 올란도 등의 자동차 시트를 생산 중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별도): 3,192억 원</li> <li>영업이익: 177억 원</li> </ul>

\*출처: 각 사 홈페이지, 각 사 사업보고서(2022.12) NICE디앤비 재구성



### III. 기술분석

#### 편의성을 높인 가변형 시트 설계 기술 보유

동사는 안전성 향상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선행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개발초기 단계부터 제품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시트의 착좌감, 편의성, 기능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렐렉스, 방향전환, 격납고 수납 등이 가능한 가변형 시트를 설계하고 있다.

#### ■ 운전자 편의와 안전을 위한 필수 부품

자동차 시트는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자동차 내에서의 안락감을 제공하고, 사고로부터 운전자 및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주요 부품 중 하나로,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도 존속에 대한 연관성이 크지 않은 전통적 기술 제품군에 속한다. 자동차가 발전함에 따라 주행 중 운전자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전동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트의 착좌감, 편의성,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시트는 열선, 공조, 마사지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면서도 자동차 연비효율을 위해 경량화 및 저전력 소비가 요구되고 있고, 높은 안락감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가 지향하는 가치에 맞춰 시트 소재 역시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 착좌감을 위한 서포트 솔루션 보유

동사는 소형부터 준중형, 대형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시트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동사는 주로 기아차에 적용되는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으며, 안전, 환경, 감성들의 요소를 기반으로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친환경적이고 운전자 편의성을 높인 자동차 시트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동사는 진화되는 차량 환경과 고객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착좌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트에 대한 제품 설계부터 제조공법, 재료개발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있다.

[그림 10] 동사 서포트 솔루션



\*출처: 동사 회사소개서

시트 폼은 탑승자의 안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요소로 폼의 물성 및 디자인 형상에 따라 안락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동사는 탑승자의 체압 분포에 따른 적합한 물성을 고려하여 시트 폼을 설계하고 있으며, 인체공학적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쿨팅기법 및 고탄성 PET을 적용한 봉제기술, 바이오 우레탄 함량을 높인 다경도, 다탄성 우레탄 폼 등을

개발하여 시트 폼을 성형하고 있다. 동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소와 시트에 대한 체압 분포기를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 중이며, 볼륨감 있는 시트 생산을 위해 미국의 리어(Lear)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SureBond라는 성형접착공법을 개발하였다. 동사는 시트 냉/난방 제어 온도 순서에 대한 인체공학적인 감성 평가를 반영하여 냉/난방 회로, 패턴, 유로 분리 기술 등을 적용한 시트를 제공하고 있다.

## ■ 편의성을 높인 가변형 시트 설계 기술 보유

동사는 차량별 시트의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한 표준화된 프레임을 통해 개발 일정 및 비용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성 향상과 내구성 확보를 위해 선행검증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등 개발초기 단계부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일본 도요다방직(카니발), 서연인테크(베트남 CS시트), 현대트랜시스(베트남 AI3시트, SU2ID시트)로부터 시트 개발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생산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델타, 후지시트와도 기술제휴 및 연구원의 정기적인 기술연수를 진행하며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과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제휴, 연구개발 등을 통해 동사는 릴렉스, 방향전환, 격납고 수납이 가능한 가변형 시트를 설계하고 있다. 동사는 스위블 회전을 통한 방향전환 시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위블 장치는 구동모터와 동력전달장치, 회전 디스크 등으로 인해 부피가 커지고 구조적으로 견고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나, 동사는 모노 포스트형 내부 공간에 파동 기어형 감속 장치를 내장시켜 부품의 개수, 중량, 부피를 절감시키는 콤팩트 차량 시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후방 방향 전환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스위블 방식 대신 시트의 엉덩이 받침 부분과 허리 받침 부분의 역할을 반전시켜 회전반경으로 인해 낭비되는 공간을 최소화한 시트도 개발 중에 있다.

한편, 동사는 2015년부터 자율주행자 탑재를 목표로 릴렉스 시트를 연구하였으며, 기존 리클라이너 시트는 등받이, 발받침, 엉덩이 받침이 따로 구동되는 구조였으나, 동사가 개발한 릴렉스 시트(리클라이너 시트)는 해당 부분이 연동되어 하나의 제어 시스템으로 구동 가능한 구조로 부품을 단순화하고 무게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재 신형 카니발에 적용되고 있다.

[그림 11] 동사 시트 구조 및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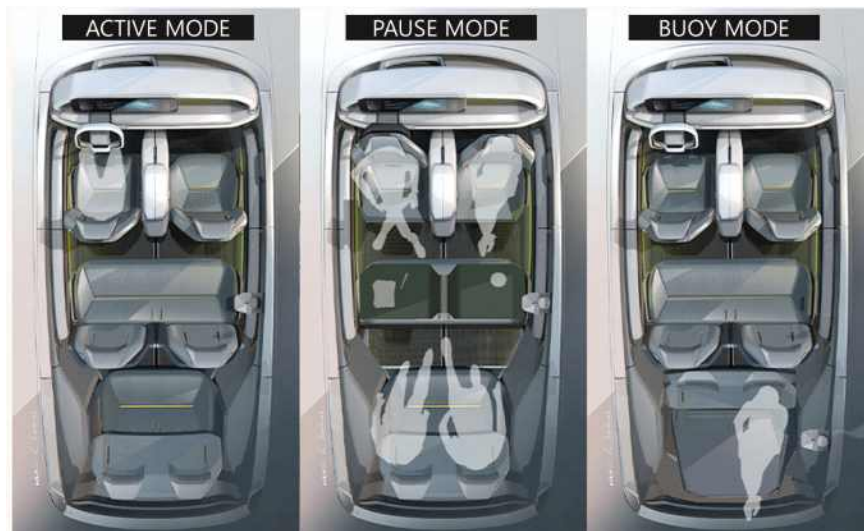


\*출처: 동사 회사소개서

## ■ 미래차를 위한 선행 연구개발 수행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기아는 목적 기반 자동차(Purpose Built Vehicle, 이하 PBV)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아는 경기도 화성에 PBV 제조를 위한 신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24년 11월 공장 시운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PBV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PBV는 전기동력 및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고령자용, 장애인용, 로보택시, 무인화물운송, 이동식 사무실, 공유차량 등)에 맞춰 제조되는 목적 기반 자동차를 의미한다. 기아는 2022년 니로 플러스 모델을 통해 영업에 필요한 올인원 디스플레이와 승객의 편의성을 높인 기존 플랫폼 기반의 PBV 모델인 택시 전용 모델을 출시한 바 있으며, 2025년에 첫 전용 PBV 모델을 소개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1위 PBV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중장기 전략을 선언한 바 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 모드가 설정되며, 운전석 시트를 돌려 탑승자간 대화를 한다던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한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누워서 지나가는 풍경을 본다던가 자동차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림 12] 기아 PBV 컨셉 예시



\*출처: 기아 홈페이지

자동차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PBV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트의 변경이 중요하다. 운전자가 탑승객과 대화를 위해서는 운전석의 앞뒤 방향이 자유롭게 변경되어야 하며, 누워서 지나간 풍경을 보기 위해선 방향 전환이 가능한 리클라이너가 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여행객용 PBV가 되기 위해선 시트가 트렁크에 대체되거나 휠체어 탑승을 위해 접이식 시트로 변경되어야 하는 등 기존 시트와는 다른 구조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동사는 이러한 완성차 업체의 PBV 출시 계획에 발맞춰 자동차 시트에 대해 선행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시트 이동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트 내에 벨트를 삽입한 시트, 홀로그램 터치 시스템을 포함한 시트, 격벽이나 사이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시트, 정수기를 포함하는 암레스트 등 PBV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트 구조를 개발 중에 있다. 동사는 일부

시트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현대자동차, 기아 등 완성차 업체와 함께 특허를 출원하는 등 공동개발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 SWOT 분석

[그림 13] SWOT 분석





## IV. 재무분석

## ■ 매출등락세, 영업수익성은 무난한 수준 유지

동사는 자동차 시트 전문생산업체로 완성차 업체 실적 및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3개년간 매출 변동을 나타냈다. 내수 부문의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해외 법인의 실적이 감소하여 2022년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4%대의 영업수익성을 유지하였다.

## ■ 매출 등락세, 2023년 매출 회복세

2020년 전년대비 2.8% 감소한 6,426.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이후, 2021년 COVID-19 유행에 따른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카니발 신차출시의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18.7% 증가한 7,626.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해외법인 판매량 감소로 전년대비 3.4% 감소한 7,370.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최근 3개년간 매출 등락을 나타냈다. 2022년 내수 부문의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해외법인 매출이 크게 감소하며 수출 비중 역시 2021년 27.0%에서 2022년 14.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3분기까지 누적매출액은 러시아, 중국 지역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5,084.0억 원 대비 16.2% 증가한 5,909.2억 원을 기록하였다.

## ■ 무난한 수준의 영업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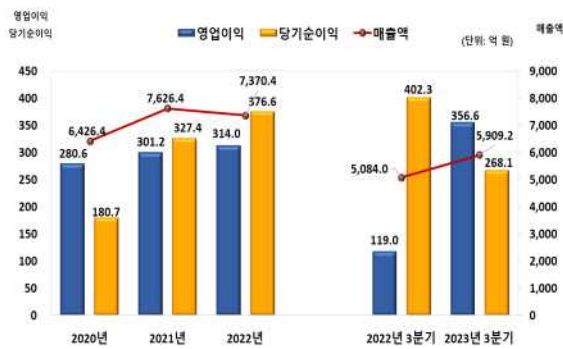
동사의 최근 3개년간 영업이익률은 2020년 4.4%, 2021년 3.9%, 2022년 4.3%를 기록하며 4% 안팎의 무난한 영업수익성을 나타냈다. 물가상승에 따른 철판, 조립재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가에 반영됨에 따라 원가율은 2020년 92.3%, 2021년 92.1%, 2022년 91.8%로 큰 변동이 없었다.

최근 3개년간 순이익률은 2020년 2.8%에서 2021년 4.3%, 2022년 5.1%로 개선세를 나타내었다. 2020년 외화자산평가손실 등으로 인한 영업외수지 적자로 영업수익성을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으나, 2021년 및 2022년에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보유외환 평가이익 등이 반영되어 영업수익성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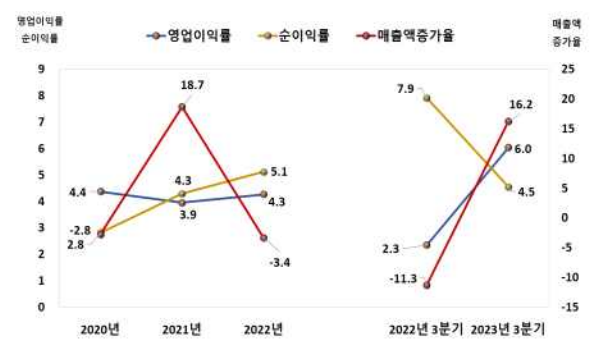
한편, 2023년 3분기까지 매출 증가와 더불어 356.6억 원의 영업이익, 6.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개선된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14]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 ■ 유동성을 포함한 재무안정성 지표 양호한 수준 견지

2020년 53.1%의 부채비율을 기록한 이후, 2021년 48.2%, 2022년 33.9%를 각각 기록하며 부채비율이 개선세를 나타냈다.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축적된 이익잉여금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며, 높지 않은 부채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견지하였다.

최근 3개년간 유동비율은 2020년 243.6%, 2021년 257.3%, 2022년 313.2%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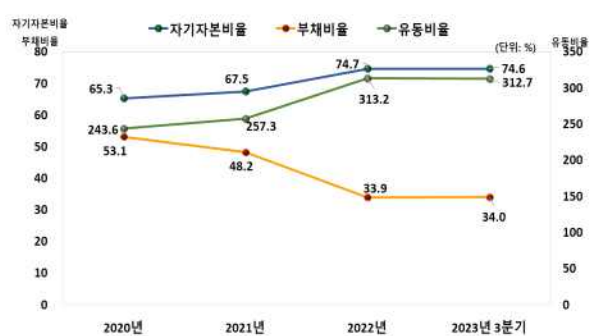
한편, 2023년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34.0%, 유동비율은 312.7%로 재무건전성이 전년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5]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구조의 안정성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5]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매출액	6,426.4	7,626.4	7,370.4	5,084.0	5,909.2
매출액증가율(%)	-2.8	18.7	-3.4	-11.3	16.2
영업이익	280.6	301.2	314.0	119.0	356.6
영업이익률(%)	4.4	3.9	4.3	2.3	6.0
순이익	180.7	327.4	376.6	402.3	268.1
순이익률(%)	2.8	4.3	5.1	7.9	4.5
부채총계	1,766.2	1,793.5	1,416.5	1,581.7	1,512.3
자본총계	3,323.1	3,718.1	4,176.6	4,310.1	4,441.7
총자산	5,089.3	5,511.6	5,593.1	5,891.9	5,954.0
유동비율(%)	243.6	257.3	313.2	329.3	312.7
부채비율(%)	53.1	48.2	33.9	36.7	34.0
자기자본비율(%)	65.3	67.5	74.7	73.2	74.6
영업현금흐름	285.2	480.2	-30.7	129.7	979.9
투자현금흐름	-528.3	763.2	-485.0	-1,259.3	-1,439.2
재무현금흐름	-87.6	-39.2	-43.6	-26.8	-52.2
기말 현금	395.3	1,603.1	1,037.8	447.3	526.3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2023년 분기별 실적 및 전망은 분기 누적금액 임)

##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수출 부진에도 내수 부문의 매출 증가로 올해 매출 긍정적

동사는 완성차 업체 실적 및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 매출이 급감했으며, 중국지역 수출이 부진했으나, 동사의 주요 납품 대상인 완성차 업체의 RV 차량 매출 증가에 따라 동사의 실적 역시 전년대비 개선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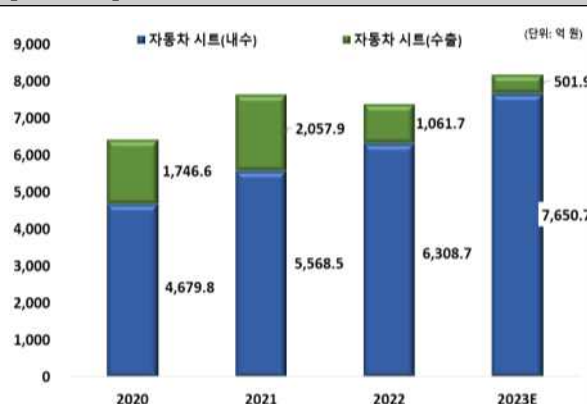
#### ■ 카니발 신차 출시 효과에 따른 수혜 기대

동사는 완성차 업체에 시트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완성차 업체의 실적에 동사의 매출이 연동되는 구조이다.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 주요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기아의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카니발이 1만 5,000대 판매되어 전년 대비 163.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내에서도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V 중심의 판매 호조와 함께 2024년 카니발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며 카니발은 2번째로 많은 국내 완성차 사전계약 건수(3만 6,984대)를 차지했다. 동사의 매출은 대부분 기아를 통해 발생되고 있으며, 기아 카니발 차종의 시트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 역시 카니발 판매 호조와 함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 동사 실적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해외 법인의 실적이 감소하고, 완성차 업체의 중국 내 점유율이 떨어지며 동사 역시 수출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내수 실적의 증가로 전년대비 개선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RV 차량의 판매호조와 카니발 차종의 신차 출시는 동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가율 상승에도 인건비 등 판매비 부담 완화로 2023년 3분까지 영업이익률이 6.0%를 기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률 역시 전년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긴축경기로 인해 자동차의 생산 부진이 전망되고 있어 차량용 시트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매출 성장 및 영업이익 상승은 일정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니발 차종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 협회(IIHS)의 충돌 테스트 결과에서 좋지 않은 등급을 받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동사의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그림 17] 동사의 연간 실적 및 전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6]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분기별 전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0	2021	2022	1Q2023	2Q2023	3Q2023	2023E
매출액	6,426.5	7,626.4	7,370.5	1,957.1	4,048.1	5,909.2	8,152.6
자동차 시트(내수)	4,679.8	5,568.5	6,308.7	1,861.1	3,850.0	5,545.4	7,650.7
자동차 시트(수출)	1,746.7	2,057.9	1,061.8	96.0	198.1	363.8	501.9
영업이익	280.6	301.2	314.0	70.8	230.7	356.6	419.6
영업이익률(%)	4.4	3.9	4.3	3.6	5.7	6.0	5.1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2023년 분기별 실적 및 전망은 분기 누적금액 임)

##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해당사항 없음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8] 동사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3년 11월 30일)